



2006. 5. 4.

추잉껌 시장동향 및 수출입동향

내용문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출통상팀

(02-2194-7453, shinilgi@khidi.or.kr)

□ 추잉껌시장동향 및 수출입 동향

○ 국내외 시장동향

- 현재 Codex에 기준규격이 설정 되어있지 않은 추잉껌 시장은 그 규모가 크고, 제품이 매우 다양하다. 2004년도에 세계시장은 과자류시장 중 껌 판매증가율은 11.2%를 기록했으며, 껌 시장은 15billion USD였으며, 이중 미국의 Wm Wrigley Jr Co.사가 세계판매량의 50%이상 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최대규모의 껌 제조회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4년 전체 과자류 시장은 -1%의 감소성장을 보였으며, 국내 껌 시장의 경우 포화상태 및 불황의 여파로 인해 껌시장은 매출액 기준으로 과자류시장 중 가장 큰 -16%라는 마이너스 신장세를 보였다.
- 국내 최대 제조/판매업체인 롯데는 최근까지만 해도 월 200톤가량의 껌을 중국에 수출하였 으며 그 밖에 중동, 호주, 유럽, 미국, 동남아일부 등의 나라에 수출을 하였으나, 현재는 대 중국수출의 관세증가 및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자체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으므로, 한국 생산껌의 중국수출은 아주 미약한 실정이다. 한편, 오리온에 서는 주로 중동(주로 이란)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인 해 오리온 역시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중국공장에서 현지 생산을 하므로, 그 내수 판 매는 증가되고 있으나, 한국제품의 중국수출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롯데가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시장을 개척한 후, Wrigley의 개입으로 인해 현재 중국 시장 내에서 경쟁을 하 고 있으나, 중국롯데가 시장선점에 우위를 갖고 있으며, 아시아시장에서는 동양제과와 롯데 그리고 Wrigley가 그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 한편, 세계시장의 무설탕껌 시장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자일리톨은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 음이 입증되어 세계적으로 충치예방식품에 이용되고 있다. 한국의 자일리톨껌 시장은 아시 아를 시작으로 선점하고 있으나 세계굴지의 껌 회사인 미국의 Wrigley와 일본 껌 제품 업체 등 사이에서 경쟁하고 있다. 무설탕껌 생산업체 가운데 스위스 및 핀란드 투자기업인 Xyrofin과 미국의 Wrigley, 중국의 Arrow Brand Chewing Gum은 모두 자일리톨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고, Lifu Candy의 <Poly> 및 Guangdong의 <Yida>, Shenzhen의 <Hua'aikang>등의 무설탕껌도 모두 자일리톨을 함유하고 있다. 자일리톨 성분은 고품질제 품으로 세계시장점유율의 85%를 생산하고 있는 Danisco-Cultor가 주 생산업체이며, 롯데 는 전량 핀란드로부터 수입해서 쓰고 있으며, 오리온은 국내산(보락)제품을 이용하고 있었 으나, 보락도 생산원가의 경쟁력이 중국에 밀리면서, 현재는 그 생산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 이다. 그러나 자일리톨의 공급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표 3-14 국내 껌 생산 및 수출 현황 (2001년~2003년)

	2001년	2002년	2003년
생산능력(Ton)	163,151	50,646	43,101
생산량(Ton)	30,306	22,557	24,841
생산액(억원)	3,106	3,207	3,157
출하량(Ton)	27,111	21,700	21,641
출하액(억원)	2,920	3,040	2,938
수출량(Ton)	2,952	5,865	4,416
수출액(만\$)	1,154	1,636	1,716
수입량(Ton)	2,045	1,852	2,126
수입액(만\$)	460	482	676
수출대상국	중국, 일본, 아랍에미리트연합, 미국,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디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48개국		
수입대상국	인도네시아, 중국, 브라질, 일본, 미국, 캐나다, 터키, 스페인, 태국, 에콰도르, 등 16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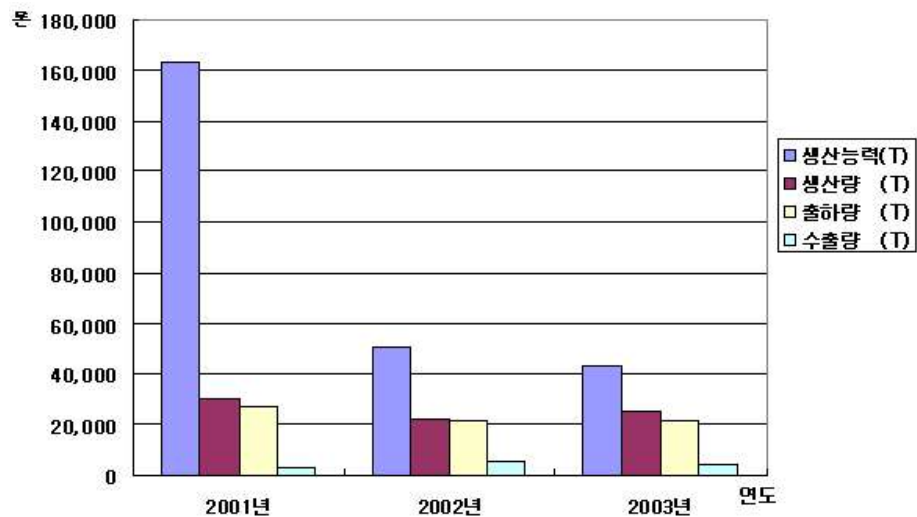


그림 3-4 껌 생산 및 수출 현황(2001년~2003년)

표 3-15 껌의 수출량과 증가율

년 도	금 액(천불)	수 출 량(kg)	증 가 율(%)
2000	25,644	9,405,597	-9.0
2001	18,558	6,984,223	-27.6
2002	16,363	6,080,632	-11.8
2003	17,167	4,997,326	4.9
2004	28,223	5,424,077	6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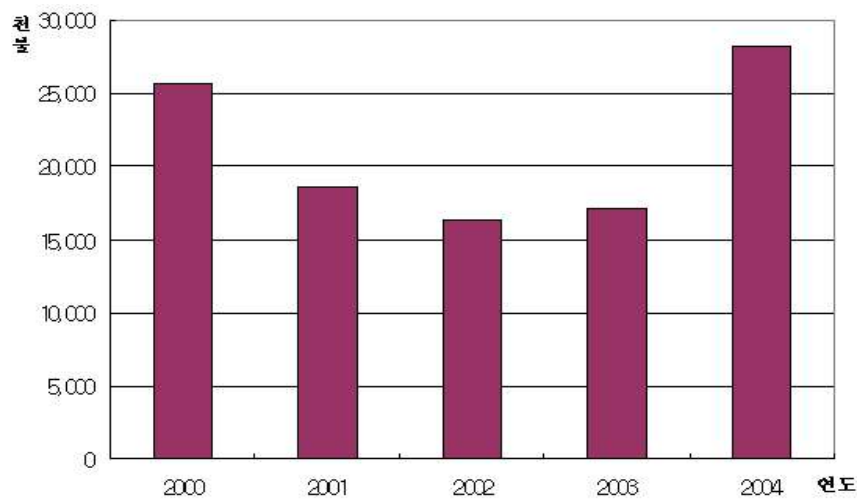


그림 3-5 껌 수출액

표 3-16 국가별 껌 수출 현황

(단위 : 천불/kg)

순 위	국가명	2004		2005(9월 현재)	
		금액	중량	금액	중량
1	일본	13,802	1,023,630	8,356	641,160
2	중국	4,584	1,176,064	7,842	1,601,029
3	아랍에미리트연합	812	263,940	1,921	667,145
4	대만	105	37,742	1,157	121,265
5	파키스탄	1,239	477,647	1,029	398,654
6	사우디아라비아	2,594	963,399	1,020	363,203
7	미국	1,097	164,505	912	95,456
8	호주	158	32,895	695	109,408
9	네팔	456	185,250	553	228,000
총 계		28,223	5,424,077	25,947	4,966,092

- 국내 껌 시장은 현재 연간 약 3000억 정도이며, 이중 약 62.8%가 자일리톨껌 시장이다.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큰 중국은 전체의 35%이상이 자일리톨껌 시장이며, 중국자체의 대규모 제조회사는 거의 없으며, 주로 해외자본의 현지투자자로 생산 및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편, 자일리톨은 그 성분이 치아건강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면서, 자일리톨껌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세계최초의 자일리톨껌 생산은 1975년 Xylitol Fresh로써 핀란드와 미국에서 거의 동시에 상업화 되었으며, 1983년 Xylitol이 Codex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정성평가 자문기구인 JECFA에서 식품의 감미료로 허가되었다. 우리나라는 1994년 롯데에서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본은 1997년 생산 및 판매를 시작하였다. 지난 2000년 5월 롯데 자일리톨껌의 마케팅 전략이 성공하면서, 매년 1,500억원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승승장구했지만, 시장과포화 및 불경기로 작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감소세는 해태 및 오리온이 더욱 심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마케팅 및 시장의 차별화전략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롯데제과와 뒤늦게 뛰어든 해태제과와 동양제과 사이의 3파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 Top 5 자일리톨껌 제품이 껌 전체매출의 70.7%를 차지하고 있다.